

## 언어의 '잔재' 육진방언 발끝에 대하여 곽충구 서강대학교 교수를 만나다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유광종(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때 2016. 2. 23.(화) 곳 교수 연구실

우리말 속 외로운 섬 하나가 있다. 두만강변이다. 조선에서 세종대왕이 개척한 육진(六鎭)에 해당하는 곳이다. 언어적으로 볼 때 북쪽의 연변과 연길, 남쪽의 함경북도 일대와도 다르다. 전체 우리말 가운데 중세국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을 ‘방언 섬’이라고 불러도 좋다.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 맨 북녘의 이 외로운 섬을 찾아 줄기차게 몸을 움직인 학자가 있다. 서강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막 퇴임한 곽충구 교수다. 우리가 이 특별한 방언의 섬에서 건져 올릴 것은 많아 보인다. 섬은 격절(隔絶)과 고립(孤立)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써 섬은 세월의 부단한 흐름에, 사람의 끊임없는 이동과 섞임에서 제법 자유롭다. 세종대왕이 개척했던 육진, 두만강 주변의 언어적 환경이 꼭 그렇다. ‘물’의 변화와 섞임에 아랑곳없이 ‘섬’의 언어는 옛 사람과 그들의 언어를 원래 그 모습대로 간직하고 발전시킨 흔적이 역력하다. 곽충구 교수의 20년에 걸친 탐색은 그것을 찾아 오늘에 잇기 위한 오랜 여정이었다. 그는 곧 3,500쪽에 달하는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사전》을 펴낼 예정이다. 문헌에만 의지해서는 결코 이루기 힘든, 발품과 함께 슬하게 많은 발화자

를 찾아 끊임없이 듣고 받아 적으며 쌓은 고된 과정의 오롯한 축적이다.  
그 오랜 여정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유광종 안녕하세요?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세요?

곽충구 오늘도 연구실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연구실을 비워  
줘야 해서요.(웃음) 제자들이 필요한 책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쪽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이라고 이름 붙인 사전의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10년  
전부터 나온다, 나온다 이야기해 놓은 것이라 얼른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유광종 상당히 방대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곽충구 1995년에 착수했으니까 만 20년 됐죠. 6월에는 책이 나왔으면 좋  
겠는데, 잘 모르겠네요.(웃음)

###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다

유광종 선생님, 올해 정년이시면 죄송하지만 몇 년생이세요?

곽충구 50년생이지요.(웃음)

유광종 딱 6·25등이시네요.(웃음) 진짜 어려울 때 태어나셨습니다.

곽충구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강보에 싸여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있잖  
아요?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가 계셨고, 어머  
니는 솜이불에 핏덩이를 싸서 친정이었던 연기군으로 피란을 가  
셨답니다.

유광종 그러면 고향에 다시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곽충구 고향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1960년대 중후  
반이었습시다. 그땐 미아리가 서울 끝이었어요. 지금 성신여대 뒷  
동산인데, 그 산꼭대기에 있던 친척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유광종 그럼 당시 고등학교를 마치시고 왜 국문학을 공부하셨어요? 희망  
하셨던 공부가 국문학이었던 건가요?

곽충구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고전문학과 고문에 관심이 있긴 했습니  
다만, 그것 때문에 국어교육과를 선택하고 국어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부실해서 고3 방학 때 집에 내려가 정양을 하  
다가 8월 20일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감  
했죠.(웃음) 당시 담임선생님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오셨는  
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을 때잖  
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지원해 보라고 권유하셔서 사범대학 국  
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유광종 졸업 이후 계획은 따로 세우고 계셨습니까?

곽충구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으니 졸업은 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고민  
이 많았습니다. 군 입대 전에는 다른 공부를 했으니 우선 전공 공  
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서울로 교사 발령을 받을 것이고요. 당시 인문대학의 이기문, 김  
완진 선생님께서 사범대학에 출강을 하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이병근 선생님의 강의를 청강하면서 국어학에 관  
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광종 졸업 앞두고 국어학, 국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거네요. 당  
시에는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곽충구 그렇죠. 저도 후기 졸업을 하고 잠시 용산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  
다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 방언 연구에 발을 들이다

**유광중** 처음에 대학원 진학하셔서, 방언에 관심을 기울인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곽충구** 들어갈 때 음운론, 음운론에서도 음운사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근대국어의 음운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제가 석사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하 '정문연') 어문학연구실에서 '전국방언조사연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1978년에 착수했는데 제가 1979년 6월부터 조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한국방언자료집》이란 이름으로 한 권 한 권 도별로 간행됐는데 그게 아마 1987년부터 1995년 사이의 일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유광중** 이때 언론에 소개된 것을 보니까 1987년에 본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완간은 아니고 처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소개한 것이 1987년경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전국방언조사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직접 현지에서 내려가 수집해 가며 조사하신 거죠?

**곽충구** 여러 의미가 있겠지요. 우선 20세기 후반 우리 국어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고, 또 국어의 지역적 차이를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일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 받은 조사원들이 전국 138개 지점을 돌며 1,782개의 항목을 조사한 균질적인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언어 조사를 해 왔던 프랑스, 영국, 미국이나 일본 등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에 자극받아 한때 방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유광중**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시게 됐나요?

**곽충구** 정문연(전국방언조사연구)에서 현지에 내려가 조사할 조사연구원 몇 명을 뽑았는데, 이병근 선생께서 정문연의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조사원으로 갈 의향은 없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방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서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웃음) 석사 논문 쓰기 전이었습니니다. 유창균 선생께서 당시 어문학연구실장을 맡으셨고, 서울대 이병근 선생께서 파견 근무를 하시면서 그 사업을 주관하셨습니다. 조사 방법론, 음성 훈련 등의 연수를 받고 또 <한국방언조사질문지>를 만든 뒤 현지에 내려가 몇 년 동안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유광중** 한반도를 아우르는 조사 연구가 처음이었나요?

**곽충구**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교수가 무려 20여 년 동안 전국을 돌며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911년에 한국에 건너온 뒤로 줄곧 조사했고 1933년 모교인 동경제국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뒤로도 방학 때마다 건너와 저 두만강 꼭대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259개 지점에서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사람이었죠.(웃음) 그리고 김형규, 최학근 선생께서도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집을 냈습니다.

**유광중** 물론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전국을 다니며 조사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곽충구** 1906년부터 일제는 '조선구관제도조사'를 통해 한국의 관습이나 민속, 법률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었죠. 조선 통치 목적으로요. 이때 오구라 신페이는 역사언어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한국어의 역사와 계통을 연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헌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니 방언 자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려 20여 년 이상을 직접 조사했으니 놀랍고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요. 그때 조사된 자료는 지금도 귀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방언 자료는요. 또 그 사람의 연구는 국어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고속철도, 버스 등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땐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구라 신페이의 논문을 보면 어떤 때는 말을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게 위에 앉기도 하면서 조사했답니다. 저도 20년 동안 두만강 유역을 조사하면서 ‘나는 만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웃음)

**유광종** 연변 쪽을 취재해 보면 그쪽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말 자체가 억세기도 하고.

**곽충구** 연변 말은 함경도의 여러 지역 방언이 뒤섞이고 또 여기에 다른 언어적 요소가 가미되어 형성된 말입니다. 또 원래 함경도방언은 음운, 어휘, 문법 특징이 중부방언과 다른 점이 많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성조가 두드러지고 또 여기에 강세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억세다는 인상을 줍니다. 전에 학술원에서 《한국 언어지도집》을 만들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거제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경도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거든요. 함흥철수 작전 때 옮겨 온 사람들의 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처음엔 경상도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일본 말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유광종** 실향민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겠군요?

**곽충구** 네. 3년 동안 서울을 비롯해 인천, 속초, 양양, 고성, 거제도 같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유광종** 우리 방언 계통이 동부, 서부로 나뉜다고 할 때, 함경도 쪽하고 경상도 쪽하고 언어 면에서 연결이 잘 안 되는 편입니까?

**곽충구** 함경도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곳이잖아요.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하고 북쪽의 말갈족이 점차 남하하면서 고려 시대에는 충돌이 많았잖아요. 세종대왕이 육진지역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사민정책을 펼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고려가 몽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함경도로 이주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인 목조 이안사의 이주입니다. 이안사는 전주에서 처갓집인 삼척을 거쳐, 함경남도 덕원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중국 훈춘시 경신진인 ‘오동’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행리 때에 여진족의 반란으로 쌍성총판부가 있던 함경남도 영흥으로 다시 이주하여 세력 기반을 닦고 거토족 세력들과 알력을 빚게 됩니다.

**유광종** 이것이 정주 세력이네요?

**곽충구** 그렇죠. 어떻게든 고려가 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고려의 유민이 함경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들과 같이 섞여 살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세종대왕 때 육진을 개척한 겁니다.

**유광종** 이게 단순히 보면 국경 확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상에 대한 염원도 있었겠네요.

**곽충구** 함북 북부 지방은 ‘할아버지들이 나라의 터를 닦은 곳’이라 해서 조기지지(肇基之地)라고 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육진 개척을 반대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 좁고 척박한 땅을 뭐 하러 다시 얻으려 하느냐면서. 명나라와 여러 가지 민감한 외교사안도 있었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확보한 국경선이 기껏해야 함북 길주일 텐데 세종대왕이 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넓혔던 겁니다. 당시 그곳엔 우디거, 오도리, 오랑캐 같은 여진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광중 이게 혈통으로 보면 여진입니까?

곽충구 《용비어천가》에선 ‘야인’이라고 했는데 여진입니다. 그들하고 공방을 벌이다 일단 후퇴했는데 오도리쪽에 내분이 생기자 이때 두만강 유역을 공략하여 육진 지역을 확보하고 함남 사람들과 하삼도 주민들을 본격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유광중 하삼도라 함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인 거네요?

곽충구 그렇죠. 고려 시대에 자의로 이주했던 길주 이남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함남 사람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하삼도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하삼도 사람들이 이주를 꺼리고, 또 이미 이주한 이들 중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속출하니 신분 상승 등 여러 특전을 베풀어 가면서 이주를 독려했습니다.

유광중 무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네요. 함경도 말과 경상도 말은 서로 관련이 있나요?

곽충구 복잡하죠. 함경도와 경상도가 동부지역에 속하고 또 비슷한 음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두 방언이 서로 가깝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민의 이동과 관련지어 그 친근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동부지역의 방언은 서부지역의 방언과 다른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함경도와 경상도 방언 그리고 강원도 강릉 이남 지역의 방언에는 성조가 있죠.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성조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음운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동부하고 서부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 때문에 함경도와 경상도 방언이 서로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조가 서로 다르고 음운사적 특징은 지리방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잔재적 특징이므로 두 방언이 역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어떻든 표면적으로 볼 때 두 방언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일

제강점기 때 최초로 국어 방언 구획을 언급한 이극로 선생은 한반도의 언어는 동부와 서부로 갈라야 한다고까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유광중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민족의 이동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곽충구 이극로 선생이 그런 관점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함경도라는 곳은 생각보다 복잡한 역사의 곡절이 흐른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족의 이동만으로 이해하는 건 좀 선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유광중 그럼 음운론적으로 볼 때 ‘성조가 있다’는 것은 언어 계통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곽충구 아니요. 15세기의 중부방언이라 할 수 있는 중세국어는 성조 언어였습니다. 서부지역에서도 과거에 성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부지역에서는 성조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흔적으로 음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평안도를 빼고요. 평안도는 음장도, 성조도 없는 지역입니다. 어떻든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어느 방언이든 성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현대 방언의 성조 유무를 가지고 계통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범의 꼬리를 쥐다

유광중 선생님, 육진방언을 연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선생님 업적이신데.

곽충구 언어는 인간의 정신세계나 삶의 양식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육진 방언도 이 방언을 쓰는 언어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국어의 한 갈래인 육진방언은 국어의 보편성과 이 방언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조사·연구하고 또 육진방언이 가진 체계와 구조, 그리고 역동적인 언어 현상을 밝히는 일은 국어학을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육진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해 그간 조사·연구가 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육진방언은 음운론적으로 보면 근대국어와 비슷합니다. 대략 17~19세기까지의 국어를 근대국어라고 부릅니다. ‘중다’라는 말을 옛날에는 ‘똥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발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음운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휘도 고어가 다수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폭넓게 조사해 놓으면 문헌 자료로는 연구할 수 없는,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국어의 지리적 분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요.

**유광종**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 삼남 다른 지역의 방언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인구가 섞이고 빠르게 유동하면서 원래 고유의 형태가 보존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곽충구** 육진지역은 아무래도 중부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니 언어의 변화가 더디지요. 그래서 ‘잔재지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옛 언어적 요소가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 연구, 방언학 연구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두만강 유역의 여섯 곳과 연길, 용정에서 조사했습니다. 두만강 하류부터 상류까지 거슬러 오르다 보니 우리 조선족의 민족공동체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사를 포함하여 그들이 살아온 역사는 물론 생활 문화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은편 북한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은 상태고요.

**유광종** 언어적 속성뿐 아니라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하셔야 했던 거네요?  
**곽충구** 그러다 보니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보자들의 연세는 다 팔구십이 넘으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죠.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향이나 진에 들어가 보면 소학교는 거의 다 폐교되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한족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또 도시의 젊은이들은 한어를 많이 쓰고 생활양식이 한족과 비슷해 ‘한화(漢化)’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조사 내용에 민족지(民族誌, ethnography)적인 성격을 보태고, 보태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광종** 앞으로 더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것은 언제 착수하신 거예요?

**곽충구** 1995년도에 처음 갔으니까 만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싶어서 지금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웃음) 아무래도 더 이상 미룰 순 없고 올 6월쯤에는 사전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사전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사전의 체제나 구조를 설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수많은 변이형들을 어떻게 사전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뜻풀이, 성조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 조사한 내용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항목을 추가하면서 이미 사전에 올라 있는 항목과 관련지어 재집필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웃음) 15년 동안 만난 제보자 할아버지가 그래요. “곽 선생! 범의 꼬리를 쥐 격이오.”(함경도 방언으로) 그 속담 뜻 아세요?

**유광종**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놓아도 죽고, 계속 잡고 있을 순 없고.

**곽충구** 그렇죠.(웃음) 범의 꼬리를 붙잡고 있자니 힘이 달리고, 놓으면 내가 죽고,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딱한 처지를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 말은 제가 그 풀이란 말이죠. 오래전부터 얼른 사전 편찬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주저주저해 왔습니다.

유광중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함경도 사람들도 고유의 육진방언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미 많이 변했을 테니까.

곽충구 많이 변했죠. 2003년 무렵,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손잡고 민족어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여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 조사한 자료를 얼마 전에 제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광중 선생님께서 조사하신 것과 직접 대조해 보실 수 있었겠네요. 같이 봤을 때 어떠하던가요?

곽충구 차이가 많았습니다. 북한과 제가 조사한 지점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지척에 있었지만 차이가 많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표준어를 버리고 평양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북한은 이 문화어를 보급하기 위해 ‘문화어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언어 외적 환경 속에서 살아오기도 했지만요.

유광중 현지에서 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서로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텐데.

곽충구 제보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우선 “아바니”, “아매”, “~함둥”, “~했습구마” 같은 거기 말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서울말, 그러니까 제가 구사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유광중 선생님께서 직접 그쪽 말을 구사하시면서 제보자한테 토착어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었네요?

곽충구 그럼요. 그곳 사람들은 ‘옛날’을 ‘넛날’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성조를 넣어 “넛날 혼세느 어피 했슴둥? 즉금가 따압디?” 이렇게 물어봐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그네들의 혼인 풍속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줄줄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국제음성기호로 정밀전사를 합니

다. 귀를 바짝 열어 놓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녹음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녹음기도 여러 차례 구입하느라 돈도 많이 썼죠.(웃음) 특이한 어휘가 나오면 제보자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 밤을 지새우며 녹음을 듣고 의미, 발음, 문법 정보 등을 정리합니다. 물론 모두 정리하진 못하니 중요한 것만 우선 정리해 놓죠. 그리고 미심쩍은 것은 다음 날 확인 조사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녹음한 내용을 몇 달 동안 전사하고 검토하면서 유의미한 언어 정보를 추출하고 이걸 사전 구조에 맞게 가공해 사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가요.(웃음)

유광중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하고 확실한 조사 결과를 위해 조금만 미심쩍다 싶으면 다시 또 가셔서 조사하시는 고생을 감내하신 거네요?

곽충구 네. 또 가는 이유는 추가 항목이 자꾸 생겨나고, 또 이미 조사한 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제보자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한 사람이 제공한 정보를 모두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차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또 음성을 정밀하게 청취하려면 녹음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녹음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밀한 음성 특징을 포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음도 그렇지만 소리의 높낮이나 길이도 그래요.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채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ㅈ’은 경구개음, 치조경구개음, 치조음 등으로 실현되는데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변이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그들이 제공하는 언어적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 언어 직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사전적 기술을 하면 위험하지요.

유광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오류를 부를 가능성에 큰 거잖아요?

곽충구 그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걸 언어학에서는 메타언어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조사 어휘가 갖고 있는 미세한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언어 정보를 그 지역의 언어를 통해 해석해야 하는데, 저는 표준어 사용자이면서 중부방언 화자이기 때문에 그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같은 모음이라도 조음 위치가 조금씩 달라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유광중 반대로 제보자들도 선생님 말씀을 곡해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곽충구 못 알아듣거나 달리 이해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요컨대 쌍방 간에 메타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광중 조사는 일 년에 얼마나 하셨나요?

곽충구 보통 일 년에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가면 보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정도 조사합니다.

유광중 하루에 7시간이면 강행군하시는 것 아닌가요?

곽충구 강행군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6시간 정도 할 때도 있고요.

유광중 조사를 마치고 현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위를 둘러볼 시간은 있나요?

곽충구 이번에 갔을 때도 연변대학 교수가 제게 하는 얘기가 “중국을 스물몇 번을 왔는데 백두산 한 번 못 가 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웃음) 그럼 제가 몸이 피곤해 못 갔단 얘긴 못하고, “저 두만강은 우리 민족사를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두

만강을 한없이 구경했으니 그것으로 관광한 셈 치고, 백두산은 훗날 통일이 되면 그때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습니다.”라고 농담 삼아 말합니다.(웃음) 어찌 됐든 조사를 끝내면 연길로 돌아와 연변대학 선생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유일한 휴식이라면 휴식입니다. 그동안 작고하신 연변대학의 전학석, 장성일, 장정에 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광중 저도 연변 출장 갔을 때 느꼈지만, 두만강 유역이 한반도의 문화가 희한하게 엮히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여진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많이 변하긴 했지만 훨씬 전에는 역사 공동체로서 우리 민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곽충구 함경도에는 여진 지명이 더러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자취죠. 함경도 말 속에 남아 있는 여진어·만주어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두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중앙어의 확산으로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한 스무 개 정도의 여진어·만주어, 몽골어로 추정되는 어휘를 수집했습니다. 대부분 생활 문화와 관련된 물명(物名)으로 우리말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제가 여진어·만주어를 잘 모르고 또 여진어·만주어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가령, 두만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에 만주어로 ‘야루’라는 것이 있는데 제보자들은 ‘야뤄’ 또는 ‘야래’라고 합니다. 또 두만강에서 오리나 기러기를 잡을 때는 ‘탄’이라는 수렵 도구를 씁니다. 말뚝을 한 삼십 개 박아 놓고 밧줄로 연결한 다음 말뚝 위에 올무를 매어 둡니다. 이걸 ‘탄’이라고 하는데 만주어로는 ‘단(dan)’입니다. 18세기에 간행된 만주어 어휘집 《한청문감》에 이 ‘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



가 조사한 내용과 같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꿩을 잡는 그물로 ‘꿩꼬스레’라는 것이 있는데 만주어로는 ‘울후마 알간(ulhvma algan)’이라고 합니다. 《한청문감》에 그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역시 제가 조사한 내용과 같습니다. ‘꿩꼬스레’는 만주어가 우리말로 대치된 경우가 되겠지요. 어쨌든 여진족이나 만주족의 생활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예들이지요.

### 육진방언을 따라 유랑하다

**유광종** 육진방언을 달리 표현하자면 ‘언어의 화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선 어쨌든 계속 사라져 가는 우리말을 채집하고 계신 거잖아요. 조금 재미있게 표현해서 ‘언어의 고고학자’라는 수식은 어떠세요? 침전해 있는 언어의 흔적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해오셨는데.

**곽충구** 잔재지역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화석(fossil)’이라는 단어보다는 ‘잔재(relic)’라는 단어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의 일면만 보면 고고학자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죠.(웃음) 진짜 화석이나 유물들은 땅을 파야 나오는 거지만, 말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유광종** 제가 접했던 연변 언어는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만강 일대의 육진방언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더군요. 성조는 함경도 툐이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중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다양한 말이 섞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곽충구** 노인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방언을 구사하지만 젊은이들 말은 매우 다릅니다. 가장 안 변한 것이 성조이긴 한데, 중국 말을 직접

차용한 말이나 번역 차용한 말이 많고 또 중국 말을 우리 한자음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국 조선어 표준어의 영향으로 북한어도 쓰고 최근에는 한국어도 꽤 많이 차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교포들이 사는 곳에 가면 위성 안테나를 ‘가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방언 ‘鍋蓋(솔뚜껑)’를 번역 차용한 말이더군요.

**유광종** 보통 6대 방언이라고 지칭하는데, 육진방언 빼고요.

**곽충구** 국어의 방언 구획은 학자마다 다른데, 보통 오구라 신페이의 방언 구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칭은 김병제가 붙인 동북방언, 서북방언, 중부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도방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 생각으론 육진방언은 동북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육진방언을 따로 떼어내 7대 방언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접 지역과 고립되어 다른 언어적 특징을 지닌 곳을 ‘방언 섬(Dialect Island)’이라고 하는데, 육진방언은 그러한 방언 섬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광종** 혹시 특별히 육진방언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곽충구** 그 애길 하려면 오래 걸릴 텐데.(웃음) 대학원 다닐 때 계통론적 관점에서 한국어를 연구한 램스테트(Gustaf John Ramstedt)의 저서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어 문법(A Korean Grammer)》, 《한국어 어원 연구(Studies in Korean Etymology)》, 《알타이어학 입문》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어 문법》 서문에는 러시아의 키릴문자로 적어 놓은 사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램스테트는 이 사전이 “작기는 하지만 훌륭한 사전(a small, but good dictionary)”이라 하고 이 사전에서 인용한 자료를 “N.K.(North Korean)”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비롯해서 램스테트의 저서에는 ‘N.K.’로 표시된 자료들이 많은데 그 자료들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어 문법》 속에는 “N.K.는 한국어의 역사를 복원(restoration)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램스테트가 말한 사전은 1904년 제정 러시아의 카잔에서 러시아정교선교협회에 의해 간행된 소사전으로 이름은 《시편 노한소사전》입니다. 이 사전과 사전에 수록된 북한 방언이 궁금했습니다.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 시작한 공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유광종** 결과적으로 램스테트가 기록한 북한 방언이 어떤 식으로 수집되고 정리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본격적인 북한 방언 연구를 시작하신 거네요.

**곽충구** 동기는 그런 셈이지요. 그러다가 제정 러시아에서 간행된 한국어 문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램스테트의 알타이어 학설을 공부할 겸 해서요. 최초의 한국어 대역사전으로, 1874년에 간행된 푸칠로(Putschillo)의 《시편 노한사전(로한즈면)》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광종** 그럼 ‘N.K.’ 표기 자료들의 출처가 된 책을 찾기 시작하시면서 러시아어 공부까지 시작하셨군요.

**곽충구** 예. 그런데 램스테트가 말한 《시편 노한소사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램스테트 문고에는 그 사전이 있겠다 싶어 당시 헬싱키에서 알타이어를 연구하던 고(故) 고송무 교수께 편지를 드렸더니 곧장 그 사전을 복사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전은 당시 동방학 연구의 중심지였던 러시아 카잔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유광종**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기도 전에 이미 러시아는 한반도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군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자기 세력을 먼저 뻗치는 게 과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때 방언 채집이 왕성히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곽충구** 예. 그런 목적으로 편찬된 사전이나 회화집도 있습니다만, 위 두 사전은 편찬 동기가 그와 다릅니다. 1849년과 1850년 아이훈 조약과 베이징 조약에 의해 연해주가 러시아로 편입된 뒤, 1863년부터 함경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심해 먹고살기 힘들니까. 당시 연해주 총독부의 행정관이었던 푸칠로가 《조선위국자취》라는 책을 참고하면서 연해주 거주 함경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 한국어를 채록하고 그걸 바탕으로 1874년에 《시편 노한사전》을 편찬한 거죠. 그 뒤 1904년에 나온 《시편 노한소사전》은 조선 이주민이 많아지자 러시아 당국이 조선인 자녀들의 러시아어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든 사전입니다. 이주민의 대부분이 두만강 유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한국어로 사전을 편찬해야만 러시아어 교육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유광종** 완벽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상당한 근사치의 육진방언 자료들이 있겠네요?

**곽충구** 푸칠로의 사전은 그렇지만 《시편 노한소사전》은 어느 정도 사전의 형식을 갖추었고 또 육진방언을 아주 정밀하게 전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램스테트가 ‘훌륭한 사전’이라고 했겠지요. 당시 역사언어학의 영향이지요. 그 뒤로 러시아에서 나온 한국어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로스 킹 교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들 문헌에 수록된 육진방언의 음운 면을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 문헌 자료 중심의 국어음운사나 방언학 쪽을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유광중 그럼 그때부터 조사원의 임무보다는 선생님의 학문적인 발전에 공을 들이셨겠네요.

곽충구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학술원의 《한국언어지도집》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웃음) 그때는 제가 맡은 정문연의 《한국방언자료집》 출간을 막 끝낸 뒤라서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가방을 싸 들고 다녔지요.(웃음)

유광중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곽충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 년 동안 속초, 양양, 고성, 거제도, 인천, 서울의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북오도청을 방문하고 또 각 군민회 회장들을 만나서 제보자를 구하고 그러면서 삼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광중 그래도 보람과 성취가 있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곽충구 《한국방언자료집》의 간행이나 학술원의 《한국언어지도집》 제작에 참여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사에 매달리다 보니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유광중 그 뒤로는 사전 편찬을 위한 조사 외에 방언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셨나요?

곽충구 앞서 조금 말한 것처럼 2003년에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 사회과학원이 ‘남북지역어조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이징 회의에 참석하고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더 이상 하고 싶은 공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언제까지나 녹음기 들고 조사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국립국어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해외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언어

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쪽 교포들은 대개 함경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인데, 함경도 말도 알고 또 러시아 말도 좀 아는 사람이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고 고사하다가 결국 그 일을 맡아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세 나라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말을 조사하고 나라별로 네 권의 책을 간행했습니다.

유광중 그래도 잘 마무리하셨네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셨어요?

곽충구 중앙아시아의 고려말과 중국의 육진방언은 모두 소멸 단계에 놓여 있어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 또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을 어느 정도 해 봤으니 보람은 있지요.

### 방언 연구에 대한 기대와 우려

유광중 그렇게 고생하셔서 나온 결과물이군요, 이 책이.(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방언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곽충구 외국어의 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구라 신페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논저를 읽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조금 했고, 또 박사 논문 쓸 무렵에는 제정 러시아 시기에 간행된 한국어 관련 문헌들을 발굴하고 해제와 자료의 성격을 밝히는 글을 쓰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내 교포들의 언어를 조사하면서 중국어를 조금 공부하게 됐습니다. 학부 때 외국어를 제때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유광중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연구 업적을 정리하신다면 그 감상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곽충구 처음 근대국어 음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주로 국어의 지리적 분화에 관심을 두고 음운사, 어휘사와 관련된 글과 육진방언에 관한 글들을 썼는데 늘 뭔가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자료의 제시와 연구 방법론은 적절했는지 요즘 반성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일이지만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언어지도집》, 《방언학사전》을 간행한 일과 해외 교포들의 언어를 조사·연구하고 몇 권의 책으로 펴낸 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사전》을 빨리 탈고해야 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제 인생에 역마살이 끼었는지 어쨌든 평생 방언을 조사하러 여기저기로 이리저리 허둥대고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유광종 오랫동안 방언을 연구하시며 겪은 일들을 선생님 말씀을 통해 전해 들어 보니까 역마살은 감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웃음) 선생님 후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육진방언을 계승 발전시킬 만한 역량들은 어때요? 현재로서는 좀 더 두꺼워야 하는 거죠?

곽충구 제자들 중에 육진방언 쪽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쓴 사람이 한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고요.

유광종 우리 방언 연구 인력이 많이 적은 편인 거죠?

곽충구 국어 방언을 연구하는 학자층이 좀 더 두꺼워야 합니다. 방언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이 더 나와야 하거든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방법론과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발품 팔아 현장 조사를 하고 연구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광종 우리 방언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곽충구 지역 방언이 빠르게 표준어로 대체돼 가면서 소실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회는 더 다원적으로 분화할 것이고, 또 의사소통의 매체는 더욱 발달하고 널리 보급될 것이므로 지역 방언의 소멸은 더욱 빨라질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사회방언학적 연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사회적인 변인에 따른 변이나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방법론이 구체화되고 또 실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방언 자료를 이용해 국어의 지리적 분화나 국어사를 좀 더 폭넓게 연구했으면 합니다.

유광종 북한에서 육진방언이 그나마 남아 있다는 곳이 두만강변인데, 그곳이 사실 우리가 우리 옛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앞으로 그쪽 현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충구 남한 사람의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가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전통적인 육진방언을 구사하는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소멸 단계의 방언이니까요. 소멸하기 전에 문화인류학 등 인접 학문 분야와 연계해 더 조사할 필요를 느낍니다. 또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에는 각각 육진방언의 변종들이 있는데, 이 변종들이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광종 그러면 앞으로 북한 지역이나 다른 동포 지역 방언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충구 순수하게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렇고,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북한 방언을 지역 방언이나 사회방언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의 북한어 연구는 문화어를 비롯한 북한의 언어 규범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북한과 공동 조사가 불가능하면 새터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북한어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북한어가 북한의 정치체제나 사회문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변화 요인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남북한어의 이질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 일본, 중앙아시아, 중국 등 해외 교포들이 말하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중국의 조선어나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에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시다. 거주 지역 언어와의 접촉에 의한 변이나 변화 또는 모국어의 소실 과정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 교포들의 모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광종 퇴직하신 뒤에도 작업은 계속하시는 거죠?

곽충구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정작 해야 할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웃음) 앞으로 문헌 자료와 방언 자료를 아울러서 국어 음운사, 어휘사, 국어의 지리적 분화 등을 더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광종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곽충구 고맙습니다.